

1. 바젤Ⅲ 협약 규제 내용

구 분	내 용	시기
자기자본 규제 (BIS비율)	자본종류별 구성항목 변경 : 보통주자본, 기본자본 등 인정범위 변경	‘13년
	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 변화 : 신용가치조정(CVA) ¹⁾ 도입 등	‘13년
	자본종류별 규제비율 세분화	‘15년
	보통주자본비율 (자본금, 잉여금 등) ≥ 4.5%	
	기본자본비율 (보통주자본 + 신종자본증권 등) ≥ 6.0%	
총자본비율 (기본자본 + 대손충당금 등) ≥ 8.0%		
완충자본(버퍼) 도입	‘19년	
자본보전완충자본 : 자본종류별비율 + 2.5%		
	경기대응완충자본 : 자본종류별비율 + 자본보전버퍼 + 0%~2.5%	
레버리지 규제	레버리지비율 (기본자본/총익스포저) ≥ 3%	‘18년
유동성 규제	유동성커버리지비율 (고유동성자산 ²⁾ /30일현금유출액) ≥ 100%	‘15년
	순안정자금조달비율 (가용안정자금 ³⁾ /필요안정자금 ⁴⁾) ≥ 100%	‘18년

주 : 1. Credit Valuation Adjustment :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련 예상 손실 반영

2. 현금, 국채, 우량회사채 등(콜론 등 제외)

3. 자본금 및 만기 1년 초과 차입금 등

4. 만기 1년 초과 자산(대출금, 자금운용 등)

2. 바젤 I, II, III 주요 차이 비교

구분		바젤 I	바젤 II	바젤 III
자본 규제	자본	기본자본 $\geq 4.0\%$ 자기자본 $\geq 8.0\%$	좌동	보통주자본 $\geq 4.5\%$ 기본자본 $\geq 6.0\%$ 자기자본 $\geq 8.0\%$
		-	-	완충자본 신설
	자산	기업여신의 위험가중치 100%	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(0~1,250%)	좌동 * 일부항목 산정방식 강화
유동성 및 레버리지				유동성 규제 및 레버리지 규제 신설

3. 바젤 III 자본 구성요소별 항목

보통주 자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며,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자본금, 이익잉여금, 자본잉여금 등 	보 통 주	기 본 자 본	총 자 본
기타 기본자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 등으로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인 자본 신종자본증권 등 			
보완자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 후순위채권, 대손충당금(위험가중자산의 1.25%) 등 			

4. 레버리지규제와 자본규제의 차이

구분	레버리지비율	자기자본비율
자기자본	기본자본	총자본 (기본자본+보완자본 ¹⁾)
자산	익스포저 액면금액 × 신용환산율	익스포저 액면금액 × 신용환산율 × 위험가중치 ²⁾
규제비율	3.0% 이상	10.5% 이상

주 : 1)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, 대손충당금 등

2) 거래상대방의 성격 및 신용등급에 따른 리스크수준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(0~1,250%)